아파트는 생활이다
– 담을 두른 마을: 아파트 입주민 공동 활동의 배경과 변화

정헌목

한국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사고 패턴은 '무관심의 문화'다. 무관심의 문화는 현대 한국의 사회·정치·경제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 일련의 행동 및 사고 패턴인데,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행동 양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대다수 브랜드 단지에서 무관심의 문화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봐도 무방하다. 무관심의 이유는 간단히 말해, "시간이 없어서" 다. 특히 직장생활로 바쁜 입주민들의 경우 이웃과의 교류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굳이 시간을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만약 이웃과의 교류가 가져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 주민들은 시간을 따로 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생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파트 단지는 공간구조상 각종 생활환경에서 가족 외의 타인과 직접 마주할 일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다.

게다가 많은 입주민들은 이런 무관심을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이웃끼리 잘 아는 사이가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술 한잔해야 하는" 등의 서로 간에 피곤한 사회적 의무가 생기고, 밝히고 싶지 않은 집안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긴다. 친밀한 이웃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굳이 이웃과 관계를 엮어 불편한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옛날 아파트'에서는 이웃 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기억하기도 하는데, 이 점에서 이웃 간 교류가 없는 '요즘 아파트', 즉 브랜드 단지는 더 편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주요 논의 내용

- 아파트 단지와 '무관심의 문화'
- '상품' 으로써의 주거 공간, 아파트
- 아파트에 부여된 가치의 다변화
- 윤리적 비판과 시장중심주의를 넘어서

*** (중략)

몇 해 전 언론보도를 통해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의 사례가 우리 주변 아파트의 평균적인 모습에 가장 가까울지 모른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동대표들과 폭행 시비마저 붙은 김부선의 주장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약 9 천 개에 달하는 전국의 300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부의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2016 년 3 월 발표), 전체 단지의 19.4%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또한 입주민 민원이 다수 제기된 492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의 감사에서는 72%에 달하는 단지에서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정헌목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시공간과 주거, 공동체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로 도시화를 비롯한 현대 한국의 사회적 변동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와 『마르크 오제, 비장소』가 있고, 역서로는 『나이 없는 시간』이 있다.

이처럼 복마전이 되다시피 한 아파트 단지 관리비 문제는 열의를 가진 일부 주민들의 감시와 고발 활동에 의해 점차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입주민 대부분의 무관심 속에 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그리고 그를 감시하고자 하는 또 다른 소수 주민들의 활동이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단면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어떠한 주거공간이 문제적이라는 사실이 곧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문제적이라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입주민들의 집단 활동을 단순히 집단이기주의의 소산으로만 보거나, 대다수 신문 경제면의 논리처럼 부동산가격만으로 아파트를 환원시켜 논하는 건 현실의 이해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미 현대 한국 도시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에 대한 직시이다. 그 출발점은 '담을 두른 마을', 즉 아파트 단지의 공간문법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삶의 양태에 대한 분석이다.

일시
2019 년 4 월 22 일, 오후 7 시 30 분-9 시 30 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 드립니다.